



Overweight (Maintain)

산업 브리프

통신부품

5G인프라 투자가 자극 받고 있다



Covid19 이후 신산업 중심으로의 산업재편 가속화 가능성과 글로벌 5G 투자의 시그널들은 5G장비주가 COVID19이후 빠른 주가 회복을 보여줄 것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5G장비주에 대한 비중확대를 제시한다.

>>> COVID19 이후 산업재편 가속화 가능성과 5G인프라

COVID19 이후 신산업 중심으로의 산업재편은 가속화될 가능성과 이로 인해 5G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COVID19로 재택근무, 언택트 소비 등 삶의 방식이 변화되고 있고, 망사용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에서 재택근무 실시 혹은 계획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40% 정도로 파악되고, 대기업은 60%정도 수준으로 재택근무에 대한 적용이 어렵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언택트 소비를 통한 이커머스 주문량 증가도 지속되고 있는데, 일간 활성 사용자 수 기준으로 1월대비 2월 쿠팡 33%, 11번가 2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향후 신산업 성장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5G 서비스 수요 확대를 전망한다. 실제로, 19년 연말 트래픽 사용량 기준으로 4G대비 5G의 트래픽 사용량이 279% 증가하였고, 이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업무 혹은 일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지속될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 재택근무를 위한 화상회의, 모바일을 통한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일반화되고, 중장기적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원격의료 시장의 성장까지 바라본다면 20년부터 글로벌 5G인프라 투자는 기존의 예상보다 빠르고 큰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 해 두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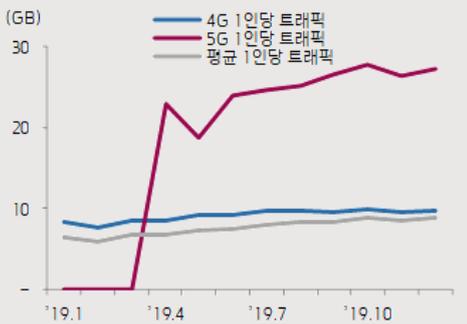
>>> 글로벌 5G 투자 본격화 시그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기부양 효과를 위한 투자 혹은 변화될 산업의 선수요 반영을 위해 5G인프라 투자가 계획보다 당겨지고 있는 시그널들이 포착된다. 우선 1) 국내의 경우 통신 3사 CAPEX규모가 20년 YoY Flat을 전망하고 있으나, 상반기 기준 4조투자로 기존 계획보다 50%정도 상향된 수치로 조기집행됨에 따라 업황개선에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2) 중국의 경우, COVID19가 잠잠해지는 시점인 지난 5일 정치상무국회의에서 신형 인프라(5G) 투자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책에 대해 논의하였고.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통신사는 20년 기존 40만개에서 상향된 수치인 기지국 60만개까지 확대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3) 미국은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과정에서 5G투자 경쟁이 시작되었고, 미국 법원의 판단으로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20년 본격 투자 집행이 예상된다. 4)일본은 도쿄올림픽 연기론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기존 7월 상용화보다 빠른 3월말에 소프트뱅크부터 시작해서 5G상용화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측면에서, 앞서 말한 가능성과 시그널들은 5G장비주가 COVID19이후 빠른 주가 회복을 보여줄 것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5G장비주에 대한 비중확대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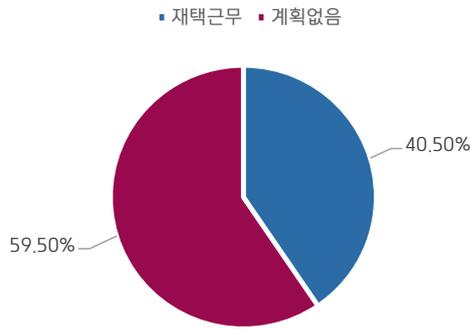
통신/통신부품
Analyst 장민준
02) 3787-4740
minjunj@kiwoom.com

1인당 모바일 트래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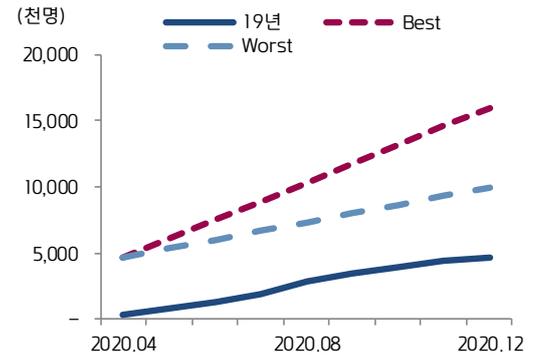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키움증권

국내 기업 유형별 재택근무 실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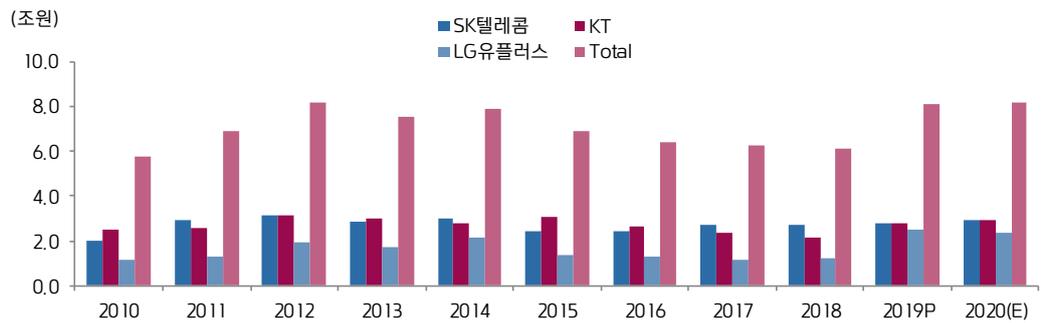
자료: 사람인, 키움증권

20년 5G 누적가입자 추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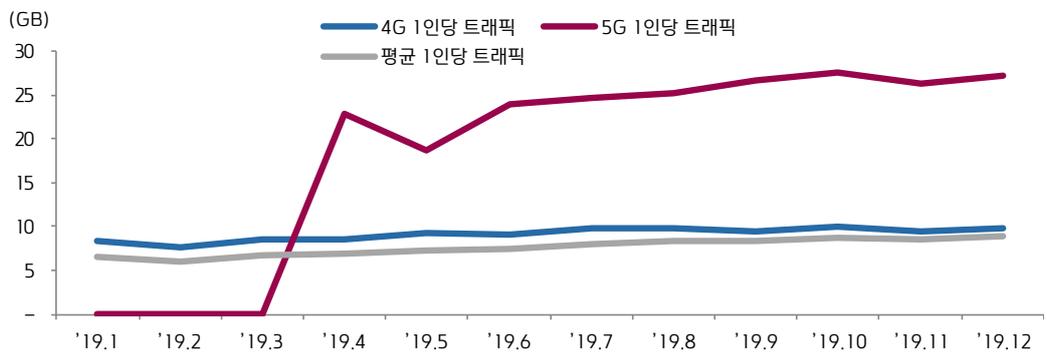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국내 통신 3사 Capex추이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키움증권

1인당 모바일 트래픽 추이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기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20%이상주가상승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상회)	시장대비+10~+20%주가상승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10~-10%주가변동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하회)	시장대비-10~-20%주가하락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20%이하주가하락예상

업종	적용기준(6개월)
Overweight(비중확대)	시장대비+10%이상초과수익예상
Neutral(중립)	시장대비+10~-10%변동예상
Underweight(비중축소)	시장대비-10%이상초과하락예상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19/01/01~2019/12/31)

매수	중립	매도
97.33%	2.00%	0.67%